

전국단위 농협 경제사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 농협경제사업활성화 방안 요약 설명

가. 현황분석 요약

1) 활성화의 기본 방향

□ 농업협동조합의 기업화 추세

-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출현에 대응하여 농협의 역할이 강조되어 사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추세임.
- 협동조합이 사업기능을 자회사화하지만 협동조합 사업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대한 협동조합의 지배권은 강화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자회사는 일반기업과 달리 투자이익을 중심으로 경영이 되지 않고 조합원 농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동조합방식의 경영을 하자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의 연합회 사업기능을 강화

- 소비지시장에서의 대형유통업체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선조합으로는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합병을 통해 규모화하거나, 농협경제사업연합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연합회는 일선조합이 지역적 관할구역의 한계로 인하여 사업영역이 제한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농협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간 협동으로 사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됨.
- 일선조합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합회 사업기능을 강화함. 특히 수출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선조합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협의 연합회 사업기능을 강화함.

2) 농협경제사업의 문제점

- 농가 출하부족으로 산지농협 경쟁력이 저하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 미흡
- 중앙회 경제사업, 특히 도매사업 기능이 취약
- 중앙회 일선조합의 연계체계 미비로 사업경합이 발생
- 농협의 경제사업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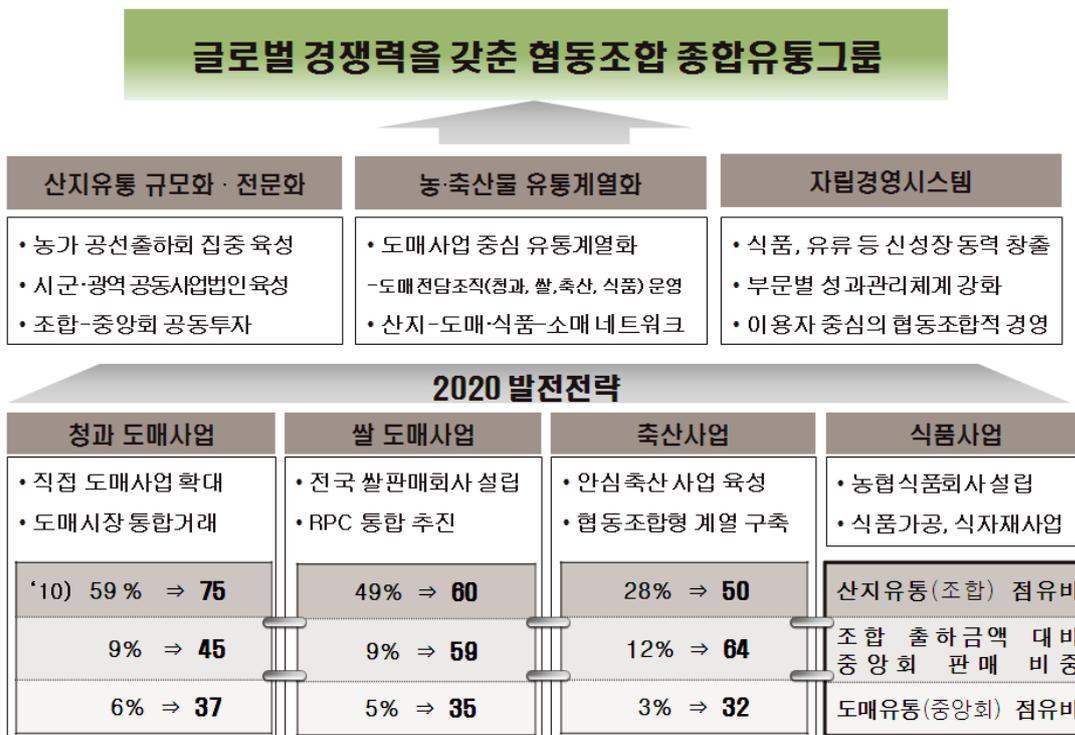
나. 농협경제사업의 비전과 전략

1) 비전

□ 글로벌 협동조합 유통그룹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비전은 개방화시대에 농협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선도하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판매농협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 영세한 농가를 공선출하조직으로 결집하여 출하단계에서부터 규모화하고, 농협의 판매사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농산물의 판매능력을 제고하여야 함.

<그림 1> 농협경제사업 비전과 사업추진전략



* 도매시장 원예공판장 경매 실적 제외

- 농가 및 일선조합에 대한 자금지원보다는 사업기능을 강화하여 판매사업을 통하여 사업참여 농가에게 최대이익을 제공하는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설정함.

2) 전략

- 첫째,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유통계열화를 구축하여야 함.
 -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하여 사업경합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화된 계열화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일선조합의 자발적인 공동사업 참여를 통하여 상향

식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여야 함.

- 둘째, 농협중앙회가 판매사업을 통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 조직화를 선도하여 효율적 판매사업체계를 구축함.
 - 산지유통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 참여로 규모화를 촉진하고, 농가와 출하협약 등의 일정조건을 갖추도록 유도함.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이 출하한 농산물은 중앙회가 책임판매하여 줌으로써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함.

<표 1> 원예농산물의 거래처 유형별, 거래방식별 사업추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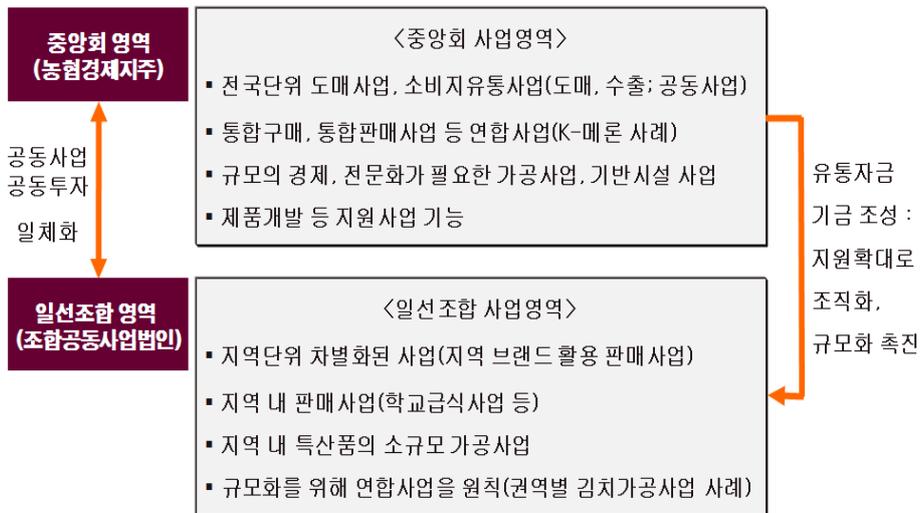
<산 지>		<농협 도매>		<거래처>	
공선 출하회 · 생산법인	⇒ 조합 · 조공 법인	직접도매	3조원	⇒	대형마트, 슈퍼체인, 농협마트, 조합마트 등
		공 판 장 <통합거래>	1조원	⇒	매매참가인(급식업체, 가공업체 등)
		공 판 장 <정가수의거래>	1조원	⇒	대형 중도매인
5조원	5조원	【책임 판매 5조원】			
일반 계통출하	⇒	공판장 <경매>	2조원	⇒	중소 중도매인

주: 도매조직 전체 사업량 7조원은 '20년 청과 총유통액의 약 50% 수준

- 셋째, 농협경제사업이 신용사업 의존에서 벗어나 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립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다. 일선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관계

<그림 2> 농협중앙회 사업영역과 일선조합 사업영역 관계



- 중앙회 경제사업은 전국단위 판매, 도매사업, 전문화를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일선조합은 지역특화 판매사업에 집중하는 분담체계를 구축함.

- 농협중앙회 사업영역은 전국단위 도매사업, 소비자유통사업(도매, 수출 공동사업)을 담당하면서 통합구매, 통합판매사업 등 연합사업(K-메론 사례)을 담당함.
- 일선조합은 지역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판매사업, 지역단위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학교급식 등 지역 내 판매사업, 지역 내 특산품의 소규모 가공사업 등 규모의 경제가 적은 지역차별화가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역 내 사업이라 할지라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일선 조합들간의 연합사업을 확대하여야 함.

2. 로컬푸드 관련 농협의 주요 접근전략

가. 학교급식 사업

1) 학교급식 현황

- 농협은 362개 계통 사업장에서 5,096억원을 공급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시장 (2.7조원)의 19% 점유
- '10년부터 NH식품사업단을 통해 서울시 및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
 - 공급실적: '10) 248억원·511개교 (경기 213·242, 서울 35·269)
- 학교급식 시장은 전국 11천여 학교에서 약 750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단체급식 시장
 - 학교급식 비율은 99.8%로 이중 약 89%의 학교에서 급식장 직영

<표 2> 학교급식 시장 내 농협

단위: 억 원, 개소, %

연 도	농업경제		
	유통센터	조합	계
2008	308(9)	1,146(236)	1,454(245)
2009	224(9)	1,299(262)	1,523(271)
성장률	△27.3	13.4	4.7

주: ()는 사업장 개소수
 자료: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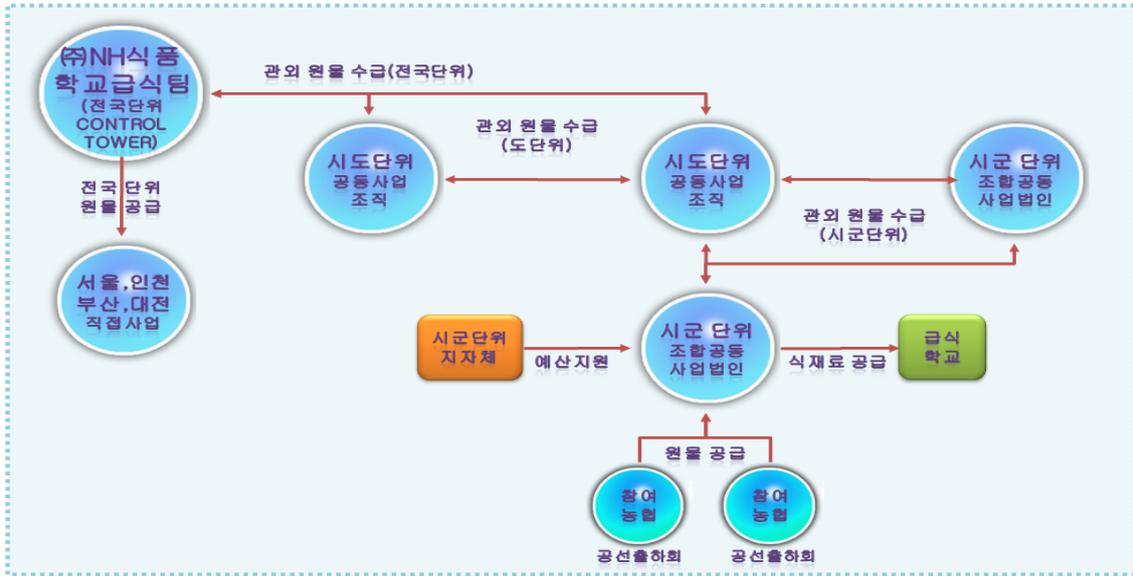
- 학교급식 예산 4.4조원 중 식재료비는 2.6조원으로 약 59% 점유

2) 사업체계 및 추진전략

□ 사업체계

- 특별시·광역시는 (주)농협식품에서 직접 수행
 - 공급방식은 (주)농협식품 직접 공급과 전문벤더를 통한 공급 병행
 - 그 외 지역은 회원농협과 중앙회가 협력하는 공동사업조직 형태로 추진

<그림 3> 사업 체계도



□ 추진전략

- 광역시 직영 학교급식센터 설립
 - 대상지역: 대전, 부산 등
 - 설립필요성 : 급식재료 생산지가 없는 광역대도시로서 직거래, 공동구매, 계약재배 정착시까지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대안형 공급시스템 확보 필요
- 도단위 학교급식 공동사업조직 설립
 - 설립목적: 지역연계 학교급식사업조직 육성을 통해 급식사업 효율성제고
 - 법인격 :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자회사(공동출자)
 - 사업영역 : 학교급식, 군납, 기타 다품목 유통
- 학교급식 통합수발주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수발주 체계로 전산화를 통한 급식사업 효율성 제고
 - 통합 수발주 프로그램을 통한 전국단위 학교급식사업의 전산 관리

3) 학교급식 및 농산물 가공 공동투자시설 배치 및 운영원칙

□ 공동투자시설의 역할

- 학교급식 및 식자재업체(향후 사업확대 시 단체급식 등 포함)에서 요구하는 식재료의 원물에 대한 관내외 수급
- 학교급식 및 식자재업체에서 요구하는 상품화 과정 : 소분, 포장, 전처리 등
-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전 안전성 검사
- 시군단위 학교급식센터별, 식자재업체별 피킹(Picking, 분류) 및 물류/배송

□ 공동투자시설의 배치계획

- 농협중앙회(경제지주)가 시행하는 지분투자율은 아래의 원칙에 의해 결정
- 공동사업조직은 학교급식, 식재료소재 부문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
- 도별로 보면 3가지 유형으로 공동사업조직 시설투자 방식이 나타날 수 있음.
 - 1유형은 대형시설을 도단위에 1개소를 설립하고, 도 전역을 대상으로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한 유형이며, 경기, 경남 등 도시화가 많이 진전되어 도시벨트를 중심으로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유리한 유형임.
 - 2유형은 중형시설을 분산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로서 도내 권역별 중소도시가 형성된 도에 해당함.
 - 3유형은 제주특별자치도 1개소로 급식시장규모가 작으며, 공급공간이 적은 경우 중형시설 1개소로 급식공급이 원활한 경우임.

<표 3> 학교급식 시장규모에 따른 도별 공동사업 조직 및 시설 구축(안)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유형	2	1	1	1	2	2	3	2	2	
공동사업조직	1	1	1	1	1	1	1	1	1	9
광역단일형 공동사업시설	0	1	1	1	0	0	1	0	0	4
광역거점형 공동사업시설	3	0	0	0	3	2	0	4	4	16
공동사업시설 유형	중형	대형	대형	대형	중형	중형	중형	중형	중형	대형 3 중형 17
학교급식 시장규모(억 원)	308	2,533	707	520	391	403	132	414	328	5,735

주: 1) 도내 1개 조직이 2개 이상의 광역거점형공동사업시설을 보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한 경우가 있어 조직수와 시설투자 개소수는 일치하지 않음
 2) 학교급식 시장규모는 농산물(쌀포함)만을 대상으로 학교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범위는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함(인근 특·광역시 초중고 제외)

□ 공동투자시설의 운영원칙

- 공동투자시설은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조직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광역거점형 공동투자시설도 공동사업조직에서 운영하되 필요시 참여조직 인력을 추가 파견받아 운영할 수 있음
- 광역학교급식체계에 따라 공동투자시설에서는 원물 구매, 소분/포장 및 전처리, 피킹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조합공동사업법인)까지 물류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이후 학교까지의 배송은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담당
- 사업초기 공동투자시설은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추후 식자재 업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 일반단체 급식, 군납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 공동투자시설의 주요 사업 분야(특히 급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품목을 농산물에서 농식품(직접 생산 제외)까지도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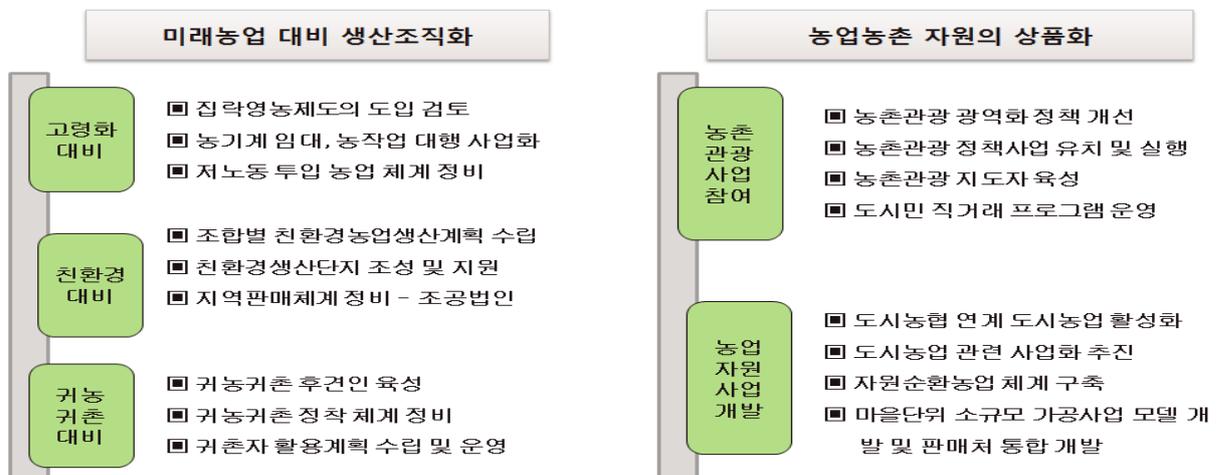
나. 지역종합센터 구상

1) 미래농업 대비 생산조직화

□ 농촌형 지역농협의 간략한 농촌관련 여건

- 농촌지역은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임. 동시에 도시은퇴자들의 귀농도 향후 10여년 이상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농촌형 지역농협의 미래농업 대비 경제지도사업 내용



- 소비자들의 웰빙트렌드과 수입농산물과의 가격경쟁력 저위를 보완하기 위한 친 환경농업이 농업농촌관광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농촌관광도 식교육과 학교급식, 1사1촌운동, 주5일제의 전면 실시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이런 거대 트렌드에 대해 농촌형 지역농협의 사업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 임.

□ 고령화 대비 농촌생산구조의 재배치 필요

-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과소화된 농촌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농업조직화”, “집락영농” 등의 통합적 지역생산 유지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 JA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농협 출자 집락영농생산법인 등을 육성하고, 이들 생산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의 계통체계를 통해 판매하여 상호 상생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의 공동이용 및 농작업의 대행은 고령자 농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양시킬 수 있는 집락영농과 연계되고 있음.
-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괴산 불정농협” 등의 공동생산단지의 공동수확단 운영 등 농 협 차원의 농작업 대행이 사업화되고 있음.
- 이런 발전은 농촌형 지역농협의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이 연계된 방식으로 전국 농 협, 특히 중산간지 및 산간지 농촌에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친환경농업 생산에 기여

-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패턴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안전을 강조하는 친 환경농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학교급식, 직거래, 일반친환경전문매장의 확대, 생활협동 조합의 확대 등으로 갈수록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친환경농산물생산 확대 정책으로 공급량도 늘어나고 있음.
- 하지만 생산농가의 분산성이 심하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친환경농산물유통 이 원활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전북 완주 고산농협”은 친환경광역단지정책의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경기 안성 고삼농협”도 1995년부터 농협의 조직력을 활용하여 친환경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생산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생산에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친환경생산을 통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주품목의 연합사업조직으로 이관시킨 후 조합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생산이 규모화될 수 있는 조합을 중심으로 친환경생산단지조성 및 지원과 이를 위한 조합 장기발전 계획에 친환경농업생산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친환경농산물은 지역 내부 근리시장이나 소비자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권역별 품목의 조정을 통해 광역단위 식품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생협과의 대규모 거래이 추진되어야 지역의 농업구조 개편의 성공요인이 됨. 이를 위해 농협이 지역판매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귀농귀촌 인력의 농업자원화

- 농경연의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촌의 귀촌인구는 19.5%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력을 농업농촌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력이 유치되기 쉽도록 구조를 만들고, 이들이 농협의 인적자원으로 기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서 농협은 각 지역별로 귀촌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파트타임 사업을 개발하고 농협의 대의원, 임원 등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여 귀농귀촌정착을 안정화시키도록 만들어야 함.
- 귀농귀촌사업은 단순한 환원이나 지도사업으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귀농센터 등 다양한 정책적 사업들을 연계하여 귀농귀촌 활동을 사업화 해야 함.

2) 농업농촌 자원의 상품화

□ 농촌관광사업의 참여

- 현재 농촌관광은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 혹은 법정리 2~3개를 합한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의 수준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음. 농협의 농촌관광인 팜스테이도 1개 마을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도시민의 농촌관광의 재방문을 위한 관광자원의 기본 범위는 마을단위로는 너무 협소함.
- 농촌관광의 수익원은 한국농촌의 특수성에 의해 유럽과 달리 숙박 및 식사보다는 다양한 농산물의 직거래의 계기로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하지만 마을단위 농촌관광의 구조로서는 공급할 수 있는 직거래 물량과 구색이 미흡하여 수익원으로 역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농촌관광의 기본단위를 읍면단위로 광역화하여 도시민 유치 및 각 농촌관광단위의 특색성 강화, 재방문 유인 강화, 직거래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추구해야 함.
- 교육농장, 학교급식, 1사1촌 등도 이런 농촌관광의 광역화를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농협은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하여 농촌관광을 실질적으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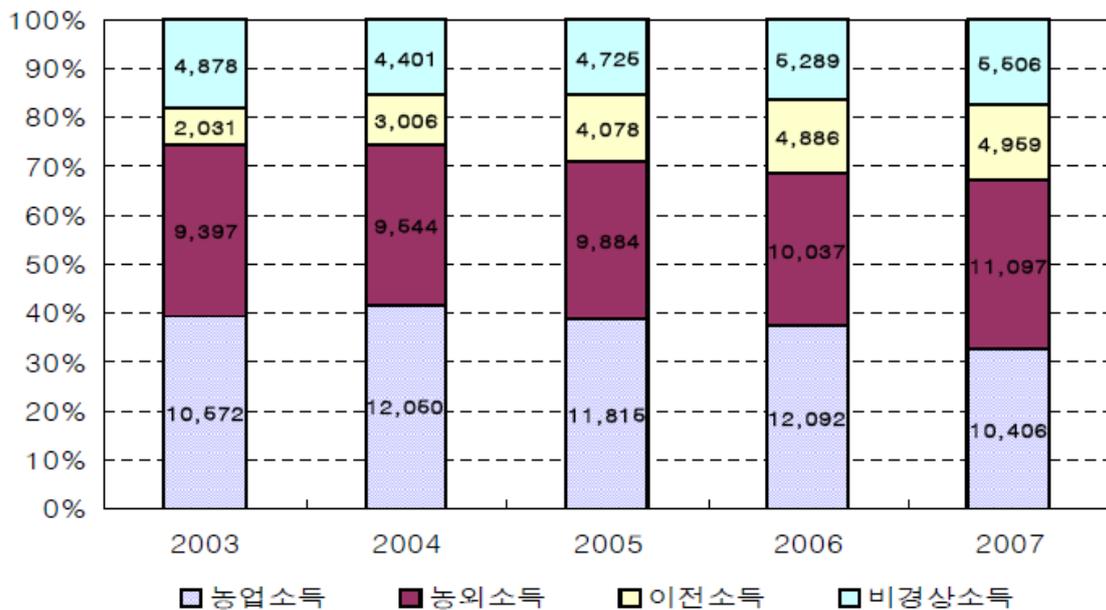
업화시키는 것이 농업과 농촌은 물론, 농촌형 지역농협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음.

- 농협의 읍면단위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

□ 농업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

-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해야 농업소득 외에도 농외소득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임.
-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율 추이를 보면 40%대에서 30%대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따라서 농협은 조합원의 수익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자원활용을 통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농협의 필수적 과제임.

<그림 5> 농가소득원 분포 변화



자료: 농경연(2009), “농업전망2009”,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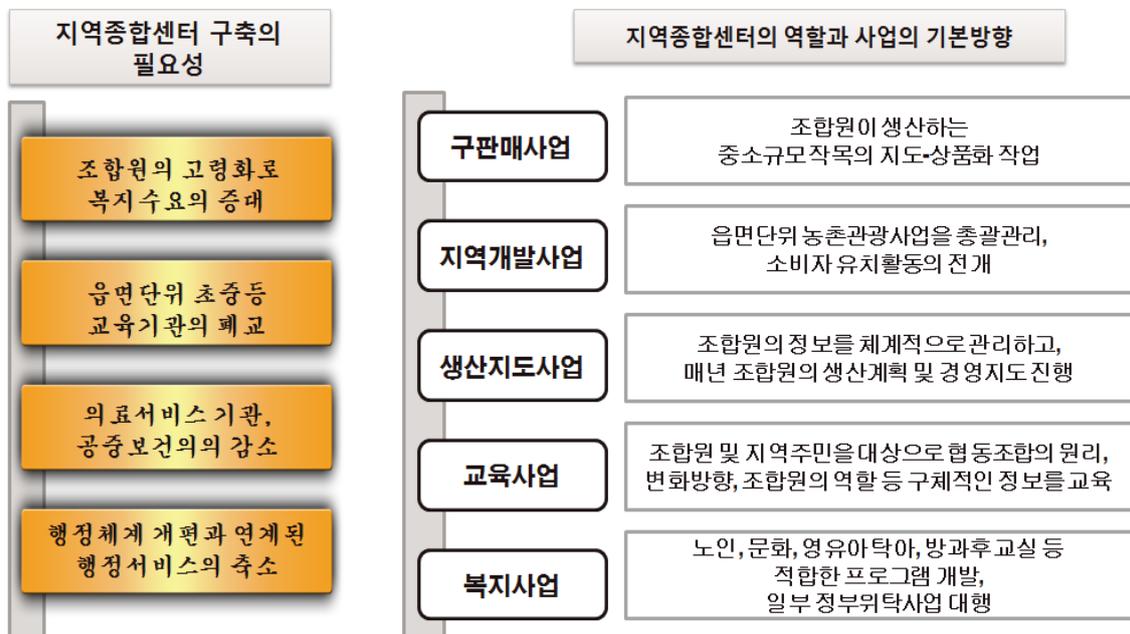
- 자원순화농업체계의 구축이나 마을단위 소규모 가공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판매처를 통하여 개발하도록 일종의 읍면단위 사회적기업을 농협의 주도하여 만들고, 농촌관광과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이런 사업들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런 조합원의 수요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함.

3) 지역종합센터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종합센터의 필요성

-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의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읍면단위 초중등 교육기관의 폐교와 의교서비스 기관과 공중보건의의 감소, 행정 서비스의 축소 등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공적 서비스 기능이 감소되고 있음.
- 결국 농촌형 지역농협이 위치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복지 및 공적 서비스 기능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
- 따라서 선진국은 1980년대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면서 기존 정부의 공적 서비스를 민간에게 효율적으로 위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그림 6> 지역종합센터 구상



- 조합원 및 농촌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조직은 “농촌형 지역농협”임.
- 따라서 농촌형 지역농협은 지역종합센터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함.

□ 기존 논의의 과정

- 중앙회는 2003년 새농촌새농협운동을 선포하면서, 지역농협의 발전방향으로 “농협이 지역의 경제·금융·문화복지의 중심이 되는 명실상부한 지역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며 “지역종합센터”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
- 2007년 발표된 농협비전 2015에서는 “시장지향적 협동조합”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목표의 하나로 “지역종합센터”를 표방하였는데, 이 때 지역종합센터는

“조합을 지역사회에서 농촌개발/복지/문화/관광/도농교류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 종합센터이며 독자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지역종합센터의 개념과 역할

- 지역종합센터는 “구매 - 판매라는 생산자협동조합의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기존의 신용사업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역협동조합의 기능을 확장하여 운영하는 지역종합농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지역종합센터는 위의 그림과 같이, 1)중소규모작목의 구판매사업, 2)읍면단위 농촌관광을 총괄하는 지역개발사업, 3)조합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이 생산계획과 경영지도를 진행하는 생산지도사업, 4)조합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5)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복지사업 등의 역할을 지역여건에 맞춰 수행할 것임.

□ [핵심사업] 농촌지역 복지프로그램의 사업화

- 고령자 복지서비스나 농촌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을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 밀착한 지역농협에서 대행함.
-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사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사전연구 및 모범사례 구축과 전파 등의 사전 작업 공동 대응

3. 농협의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제안

가. 기존 농협의 로컬푸드 논의 수준

- 농협경제연구소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로컬푸드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임.
- 1990년대 중반 주장된 ‘신토불이’를 일본의 ‘지산지소’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신토불이 담론이 WTO체제가 금지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지산지소 담론이 유용하다는 차원의 접근.(농협CEO포커스 220호, 2009. 01, 일본의 지산지소 현황과 시사점)
- 지역종합센터 논의에서 일부 연구자는 “신자유주의 농업에 대항하여 오늘날의 농촌 빈곤, 대규모 농가 영농·유통 체계, 지역농업 조직화 문제를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사회 농촌 빈곤, 대규모 농가 영농·유통 체계, 지역농업 조직화 요구가 신자유

주의 세계경제질서에 대응한 협동조합 역할로 어떻게 수렴되어 나가고 있는지” 검토하는 심화된 논의를 전개하며, 이는 로컬푸드의 관점과 비슷하나 농협 내부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음.

나. 농협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농협의 주요 관점

- 우리나라 농협은 지역종합농협체제 속에서 판매농협의 성격과 함께, 지역협동조합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농협의 발전논의는 주로 시장에 대한 전국시장 혹은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농협’의 역할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이번 농협경제사업활성화 방안도 총론은 ‘판매농협’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최근 예야 농협의 구조문제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논의, 혹은 신자유주의농업 대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역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농협과 농식품부 채택한 경제사업활성화방안에서는 일선조합 과제 영역에서 일부 포함되었음.
-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후 일선조합의 경영구조 및 신용사업 수익구조, 운영민주화의 수준변화 등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 지역종합센터의 구체화 및 친환경학교급식의 사업체계의 정비가 이뤄질 것이며, 이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농협의 참여와 사업개발이 확대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농협의 주요 관심사에서 로컬푸드는 배제될 것으로 전망됨. 혹은 로컬푸드의 이미지만 차용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임.

2) 농협의 로컬푸드 참여 촉진을 위한 몇가지 제언

- 도차원의 친환경학교급식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때, 급식 식재료의 로컬푸드(기초 및 광역지자체 내부 생산농산물)의 공급하한선을 제도화할 경우 농협은 사업적 관점에서라도 적극적인 로컬푸드 체계를 고민하게 될 것임.
- 지역종합센터구상과 논의는 로컬푸드 논의의 문제의식과 거의 맞닿아 있음. 따라서 지역종합센터 논의와 로컬푸드 논의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자 및 학계의 논의를 모아 나가야 함.
- 농협의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사업, 예를 들어 1사1촌, 팜스테이 등은 체계로서의 로컬푸드 논의를 이끌어 들이는 농촌지역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 농협의 사업구조와 체계에 대해 풍부한 이해 속에서 로컬푸드의 관점에서 현재의 농협사업을 설명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